



만월까지 (전 3권)

아반도주를 하여 아내로 맞는다. 하지만 어릴 적 정침의네에게 조부와 부모가 몰살당한 기억을 지닌 중인택은 양반집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게 못마땅하다. 월산은 중인택의 원한의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음을 근심하며 출가를 결심한다. 병삼은 송 침봉네 살림을 봐주면서 재산을 늘려나가지만 '종의 씨'라는 굴레는 계속 따라다니며 병삼을 괴롭힌다. 월산은 상화라는 여자를 통해 중생 제도에 눈뜨게 된다.

구한말 봉건질서의 최하층에서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 그들의 분노와 원한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풀어 나가려는 젊은 승려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만월까지>(전 3권, 류영국 지음, 실천문화사)가 나왔다.

1920년대 전주 근방 뱃재골 정침의네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인택과 차동 사이에 태어난 병삼과 월산은 종의 자식이다. 세상이 바뀌고 노비의 명예를 벗었다고는 하나 큰아들 병삼은 양반집 며느리살이를 연명할 수밖에 없으며, 가난과 고통 속에 자란 원한의 혼적을 지우기 위해 작은아들 월산은 종이 된다. 각기 다른 삶을 사는 두 형제는, 봉건적 신분제도의 질곡 속에서 시대의 어둠을 헤쳐 나가는 하층민과 시공을 초월한 불교의 진리를 통해 중생의 한(恨)과 원(怨)을 풀어주려는 젊은 승려를 대표한다.

윤 초사네 집에서 며느리살이를 하던 병삼은 초사의 딸 덕례와 정을 통하고

구한말 하층민 분노·원한 불법으로 푸는 젊은 스님

소설은 단순한 원한과 고난에 머물지 않고 양반 간에 은밀히 이루어졌던 이른바 '씨내리'의 비밀을 통해 계급에 대한 강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봉건질서 붕괴 속의 과도기적 혼란과 갈등은 중인택의 죽음으로 일단락 된다. 중인택은 숨을 거두면서 아들을 향해 말한다. "정 침의 가문에 원한을 품지 말아라. 알고 보면 다 한 핏줄이다." 핏줄에 얽히고설킨 모든 상처와 원한을 마지막 문장에서 풀어내고 있다. "홍터에 일던 물벼늘이 차츰 가라

류영국 지음

있고 그 자리에 덩실한 만월이 떠오르면서 숨소리가 멎었다. 뒷산 숲밭에서 산비둘기가 한창 먹이를 쏙고 있는 해 질녘이었다."

'만월'은 월산의 화두인 동시에 그들의 마음 속에 놓인 원한과 모멸감, 분노의 그늘을 벗기 위해 키워나가야 하는 희망이다. 종으로 살면서 키워온 모든 원망을 다스리고 한의 덩어리를 풀었을 때 가슴에 차오르게 될 크나큰 희열, 박탈된 빈 곳을 채움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인간의 경지가 곧 '만월'이다.

풍부한 토속어와 서정적 문체는 이 소설의 또 다른 매력이다. 민초들의 끈질기고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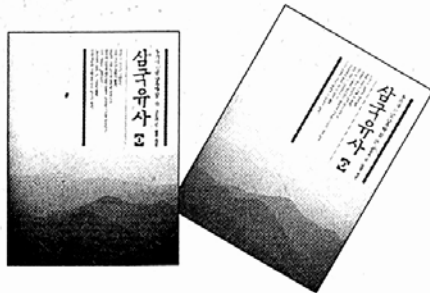
한 생명력이 문장 구절구절에 길게 배어 있는 것은 물론, 사라져가는 우리 말을 생기기 있게 되살려냈다. 또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소 부리기, 물고 싸움, 벼 짜기, 굶판에 대한 묘사 등 가난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 우리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풍습을 박물관처럼 보여주고 있다.

1999년 8월 국제신문 1억원 고료 장편 소설에 당선된 지은이는 이번엔 출간된 1부에 이어 2-3부를 준비하고 있다. 값 8천원.

출판 담당=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nia.com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고운기 지음 / 양진 사진



<장록존상이 있는 경주 황룡사터.>

후반부 2권 불교이야기 '가득'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서와 논문은 술하게 나왔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고운기 지음, 양진 사진, 현암사)는 1991년부터 10여년간 삼국유사의 현장에서 견져올린 글과 사진을 현암사가 펴내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로 묶은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삼국유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앞뒤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한 구절씩을 짚어가며 그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권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비교했고 2권은 중국의 승전(僧傳)을 참고했다. 또한 삼국유사에 실린 140

여 개의 이야기를 40개의 제목으로 분류해 실었다. 1권에는 '삼국유사'의 전반부 '기이편'을 중심으로, 2권은 후반부 '홍법편'을 중심으로 엮었다. 또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의 생애와 저술 의도를 책 곳곳에서 설명하고 본문에 없는 부분은 작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가미하기도 했다. 이야기 중간마다 다른 책에 전하는 이야기와 연대표 등을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

삼국유사의 후반부를 담은 2권에는 불교이야기가 가득하다. 경주 남산과 사내 곳곳에 펼쳐진 불교유적은 물론 월정사와 정암사 등 기이편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현장 사진을 담아 생동감을 더해준다. 값 2천원.

관무량수경 이야기

법륜 스님 지음

"이 세계가 정토"... 강의 내용 묶어



'관무량수경'이 특송집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반해 이와 함께 정토삼부경을 이루고 있는 '관무량수경'은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관무량수경 이야기>는 고통 받는 한 여인의 기도에서 부처님이 응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정토 세계에 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관무량수경'을 법륜 스님이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정토임을 보여주고, 우리의 의지로 이 세계를 깨끗한 불국토로 만들 수 있음을 설교하고 있다. 값 9천원.

히말라야 시리즈 8권 계획

<히말라야의 순례자>와 <히말라야, 인도에 빠진 닥터> 등 그동안 히말라야와 인도를 여행하며 글을 써 온 임현담 씨가 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히말라야를 그림 '설련도장' 시리즈를 펴낸다. 이번에는 <히말라야 있거나 혹은 없거나>는 그 첫 번째 권으로 '히말라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담은 것이다. 히말라야 하면 떠오르는 설봉뿐만 아니라 열대우림까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인 히말라야를 보는 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책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담은 것이라면 이번 책은 이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히말라야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임현담

책과 삶

전단방사선과 전문의 임현담

여행경험 엮은 안내서 '수미산'으로 마지막 장식

그는 히말라야에 다니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오계를 지키게 됐다고 한다. 히말라야의 산과 바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대할 때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무릎이 굽혀지고 그만큼 자신을 낮추게 된다. 이런 변화는 '의사라는 직업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환자를 볼 때 좀 더 지극하게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그 병에 걸리게 된 배경까지도 알고자 한다. 애정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게 된 것이다.

"현직인들은 히말라야를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신을 키워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히말라야를 찾는 사람들이 높은 설봉만을 바라보며 '정복하듯이' 산을 오를 것이 아니라 산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임현담 씨. 앞으로 라마불교의 꽃을 피운 시립 히말라야를 소개하는 2권과 힌두교도들의 성지인 가르왈 히말라야 등 히말라야의 곳곳을 살펴본 후 수미산이라 불리는 카일라스를 마지막으로 8권을 시리즈로 묶을 계획이다.

"직접 히말라야를 찾아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느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히말라야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교문예 현대불교 문인협회

불교문예 2002년 봄호가 나왔다. 통권 19호인 이번 호에는 제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발표와 당선소감,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인 신경림 시인의 특집을 담고 있다. 신경림 시인에 대한 시인론은 동국대 장영우 교수가 썼다. 값 8천원.

원동이

원성 스님·원동회 지음 / 원성 스님 그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원성 스님의 인터넷 홈페이지 '풍경(pungkyung.co.kr)'을 통해 공모한 창작시와 동화를 엮은 책 <원동이>(솔과 화)가 나왔다.

홈페이지 '풍경'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원동회'는

인터넷 공모 창작시·동화 엮어

지난 1년동안 원동회 백일장, 동화회, 창작시 대회 등을 통해 공모한 작품을 '풍경'의 회원인 월간지 '원동이'에 소개해 왔다. <원동이>는 그동안 소개된 회원들의 글에 원성 스님의 그림을 함께 묶은 책이다. 책에 실린 글들은 주로 원성 스님의 동승 그림을 보고 떠올리게 되는 자연과 동승, 불심을 담은 것들이다.

1부 '그림을' 편에는 동자승 그림에서 느끼는 애잔한 마음을 글로 표현한 '나는 늘 그림다', '날보고 형이래요' 등의 동화에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동승의 마음이 담겨 있다. 동자승의 일상을 담은 2부 '이야기'에는 '물고기', '꼬마바람 이야기' 등을, 3부 '길'에는 '동자승', '큰스님의 고무신' 등 동자승의 소박한 종교적 기원을 담은 동화를 실었다. 값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대우 현암사	현암사
2	참선교육1	현담 도서출판선	도서출판선
3	화	탁낫한 명진출판사	명진출판사
4	보왕삼매경론	김현준 효림	효림
5	회색고루신	윤청광 시공사	시공사
6	극락은 있다	관정 북다의마을	북다의마을
7	성철스님 사냥이야기1	원택 김영사	김영사
8	근본불교	이종표 민족사	민족사
9	오계이야기	일타 효림	효림
10	백다삼비다막가역주	임승택역주 가산문고	가산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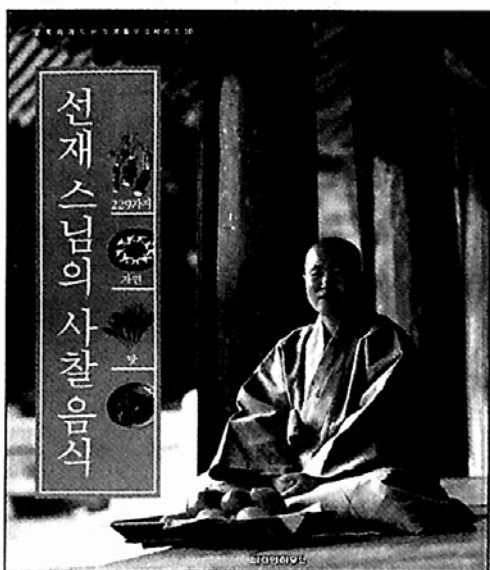
도서 안내: (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불리와 원리와 화성경, 경장(經)과 선문답을 아울러 깨달기 위한 누구라도 절제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대승 지음 | 값 15,000원 | 현암사 | 전화: 385-5051~6, 팩스: 313-2729

자연의 맛 229가지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올컬러 양장본 | 240쪽 | 값 13,500원

한국인의 건강식 사찰음식

"음식을 약으로 대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계절의 음식을 먹어라. 골고루 섭취하라. 과식은 금하고 육식은 절제하라. 2천5백년 전 이미 최고의 영양사였던 부처님이 경전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사찰음식은 단순한 식도락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식, 자연식인 동시에 정신까지 맑게 해주는 신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가득한집 가정 생활 문화지

design house inc. www.design.co.kr • www.homeliving.co.kr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71 186-210 tel. 02-2275-6151 fax. 02-2275-7885

눈물이 짙끔 가슴이 두근 010권

운주사의 하얀도깨비



지은이 김자한 | 그림이 김태환 | 올컬러 | 값 7,500원

"부처님, 제발 못생긴 은희의 얼굴을 고쳐 주세요."

제 육심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골짜고 창녀를 누워 계셨던 부처님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난 사연, 궁금하지 않아요? 도깨비 마을에서 쫓겨난 구박당어리 하얀도깨비가 창녀 우정로 부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책을 선물하세요.

디자인하우스

design house inc. www.design.co.kr • www.dhbook.com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71 186-210 tel. 02-2275-6151 fax. 02-2275-7885